

월간

메시지

n. 6 – 2021

월 사설

친애하는 친구들,

이제 막 지낸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의 큰 빛으로, 우리는 총회를 계기로 돈 보스코의 살레시안에게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편지를 묵상하고 다시 읽으면서 올해의 신심회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라는 편지의 제목은 “받은 선물을 되살리십시오”, “식별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이 “살레시안 정체성에 대한 창조적 충실함을 유지하십시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카리스마의 힘을 재발견하는 동시에 현재의 시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우리의 신심회와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관상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 왜냐하면, 비관주의도 낙관주의도 영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둘 다 자신의 힘, 능력 또는 기술로만 측정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비전에서 비롯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든 복음적 독서의 결실인 우리 신심회를 위한 몇 가지 매우 아름다운 표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의 현실로서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재발견할 필요성
2.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현실로서 ADMA를 높이 평가하기 위하여 멀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요점을 생각하면, 전염병으로 인해 큰 회의, 큰 모임을 할 수 없었지만, 지역 현실에서 ADMA로서의 우리 존재를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작고”, “가까운” 데서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당, 살레시오 집, 우리 집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돈 보스코가 150년 전 신심회 규정에서 우리를 위해 생각했던 것을 재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DMA 회원으로서 본당 생활과 살레시오 사명에 협력하고 성체와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살고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현존을 제공합니다. 매일 자기 자세에서 마리아를 본받으려는 노력,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특히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규정 4조).

반면에 두 번째 요점을 생각하면 전염병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전 세계의 다양한 ADMA 현실 사이의 세계적 수준에서 대화, 활성화, 교환의 새로운 가능성과 형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열어주고 풍요롭게 해주며,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이웃을 만나도록 가르쳐 주는 위대한 참신함, 카리스마가 구체화된 다양한 형태와 세계 곳곳에서 우리 신심회에 성령이 불어온 방향을 발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마리아께 맡기고, 새로움을 파악하고 그의 발걸음을 따라 계속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발도코 ADMA 회장,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ADMA 영적 활성화자, 알레한드로 게바라

2020-2021 양성 여정

꿈을 꾸세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

9. 시작의 은총에서 길어 내기

28차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마지막 말은 실제로 매우 짧고 간결한 것으로, 돈 보스코의 온 생애에 끊임없는 경험, 그의 모든 걸음을 동반했던 특별한 은총에 대해 언급합니다. “발도코 선택”과 꿈꾸는 능력입니다. 그의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창립자는 꿈을 꾸었고 꿈을 통해 그를 인도하신 하느님을 믿고 완강하게 꿈꾸는 것을 실현하며, 그 특별한 언어를 통해 하느님께서 그의 삶에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꿈으로 주님은 그의 삶과 여러분의 전체 수도회의 삶에 길을 만드셨고 가능한 상상력을 확장하셨습니다». 꿈으로 주님께서 직접 돈 보스코를 동행하시고 그의 마음을 넓히셨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를 잡지 못하게 하는 꿈들은 성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가 다른 두께와 다른 척도의 삶을 취하도록 도왔고, 하느님의 연민의 창자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8차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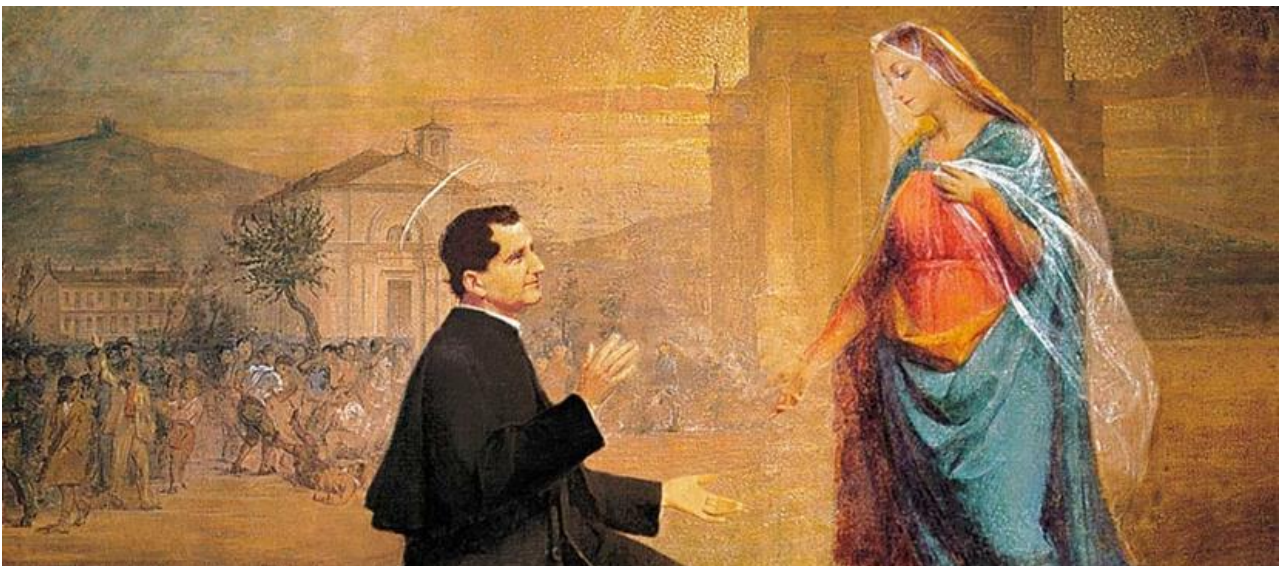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세상과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회와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우리는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위대한 이야기”, 우리 백성과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전달하고 우리의 개인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를 심오하게 만들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구원 역사에 대한 드라마, 영생에 대한 확실한 희망, 선교 모험의 열정, 성덕에 대한 열망, 수도 봉헌의 형태로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자기 헌신의 매력,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의 형태에 응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내재적 지평에 의해 정복된

오늘날, 우리는 접근

가능하고 긍정적인

미래의 비전을 키우지 못하고 현재에 짓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지상의 경험을 초월하기 위한 어떤 출구를 보지 못합니다. 상상력이 줄어들고 삶의 척도가 좁아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 편안하게 보호되며 안전한 공간에 닫혀 있습니다. 공동 여정의 여러 순간에 대회에 참석했던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을 자주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꿈꾸기를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지 않는 젊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의 영혼 자체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꿈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꿈꾸기를 포기하기까지 하는 수도회, 단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꿈을 키울 수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꿈을 멈춘다는 것은 희망을 죽이고 우리의 삶이 “슬픈 욕망”과 “어두운 욕망”에 의해 지배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절망, 우울증, 한탕주의, 모든 것에 대한 부정적 판단, 좋은 존재를 엿볼 수 없는 무능력, 출구의 길을 찾는 갈망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리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살아 있지도 않습니다! 꿈이 없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그의 길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유다의 길로 향합니다. 꿈을 포기하는 삶은 슬픔에 처합니다

교회와 살레시오가족은 상상력의 수준이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삶을 끝까지 펼칠 가치가 있으며, 그들에게 존재를 동원할 수 있는 모험으로 신앙을 제시하고,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의미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높은 이상을 깨울 수 있을 때만이 새로운 계절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는 능력을 포착한 것이 그리스도교 역사의 모든 다른 시대에 믿음을 매력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흥미롭고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예언적 초대 «꿈을 꾸세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에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보스코가 자신에게 큰 지평을 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이유이자 살레시안 카리스마와 우리가 받은 부름에 대한 쇠신된 충실성의 이유인 더 예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꿈 중에 하나를 다시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시 돈 보스코는 그에게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면서 훌륭한 사실을 재현했습니다. 그의 회상록에서 복사한 그 자신의 말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해(1844) 10월 둘째 주일, 나는 내 아이들에게 오라토리오가 발도코로 옮겨질 것이라고 알려야 했다. 그러나 장소, 방법, 사람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를 정말 생각에 잠기게 했다. 전날 저녁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 밤에 나는 새로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9살 때쯤, 베키에서 처음 꾸었던 그 꿈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문자로 펼쳐 보일 수 있을 만큼 잘 기억한다. 나는 수많은 늑대, 염소, 염소 새끼, 새끼 양, 암양과 숫양, 개와 새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모든 동물들이 한꺼번에 시끄럽게 울부짖는 소리로, 가장 용감한 사람에게도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악마적인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때 양치기 처럼 차려입은 한 부인이 나에게 그 이상한 무리를 따라와 동행하라고 손짓하였고 동시에 그녀가 앞장서 갔다. 우리는 여러 장소를 떠돌아다녔다. 세 곳에서 멈추었는데, 멈출 때 마다 그 많은 동물이 양들로 변하곤 하였는데, 변한 양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아주 많이 걸은 다음, 나는 목초지에 있었고, 그곳에는 그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지 않고 함께 경충경충 뛰기도 하고 먹기도 하였다. 피로에 지친 나는 근처 길옆에 앉고 싶었지만, 여목자는 나에게 걸음을 계속하라고 권유했다. 잠시 길을 더 걷고 나서 나는 주변에 회랑이 있는 넓은 뜰에 있었는데, 회랑 끝에는 성당 하나가 있었다. 거기서 나는 5분의 4가 양들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양들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그때 별안간 여러 목동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머물다가 금세 떠나가 버렸다.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많은 양이 목동들로 변하였고, 목동들이 증가하면

서 다른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었다. 목동들은 큰 무리로 불어나면서 나누어졌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이상한 동물들을 모아 다른 목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나는 떠나고 싶었다. 미사를 드리러 갈 시간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목자는 남쪽을 바라보라고 나를 초대하였다. 바라보니, 옥수수, 감자, 양배추, 사탕무, 양상추와 다른 많은 채소들이 파종 된 들판이 보였다. - 다시 한 번 바라보아라, 그녀가 말하였다. 그래서 다시 바라보았는데, 아름답고 높은 성당이 보였다. 오케스트라, 기악과 보컬 음악이 미사에 노래 하도록 초대 하였다. 그 성당 안에는 큰 글자로, “여기는 나의 집, 여기서부터 나의 영광이 퍼져 나가리라(HIC DOMUS MEA, INDE GLORIA MEA).”라는 글이 쓰인 흰 색 천이 드리워져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계속 여 목자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 걸음, 그 멈춤, 그 집과 성당 그리고 다른 성당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싶은지. -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지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실제 네 육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맨눈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 그 순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성모송 종이 울렸고 나는 깨어났다(MB II, 243-245).



세련되고 친숙한 밤 인사에서 28차 총회에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는 우리 교육 카리스마의 활력에 대한 분명한 표시인 꿈을 꾸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모든 살레시안 집에서 하듯이, “밤 인사”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큰 꿈을 꾸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부름 받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개방적이고 풍요롭고 복음을 전파하는 집을 꿈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과 모든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의 힘과 빛, 위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탱하는 신앙공동체, 의미와 삶의 지평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신앙과 예언의 교육**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꿈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는 신앙은 젊은이들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있습니다. 돈 보스코의 꿈들은 스스로 실현될 운명의 예언이었습니다. 즉 꿈은 그를 신앙으로 이끌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도록 그를 밀어주었습니다. 꿈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잡고 동행하셨고, 어떤 젊은이도 예외없이 모든 젊은이들의 선을 위한 예언자로 그를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개인성찰을 위하여

오늘 당신에게 하느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삶의 이 순간에 하느님은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시나요?

지역 ADMA에 대한 하느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위하여

선교에 열리는 바오로의 비전 (사도 16,6-10)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행동을 위하여

당신의 꿈과 하느님의 꿈을 담은 편지 쓰기.



서로를 알아가기

스페인 마드리드 - ADMA

마드리드 중앙 구역 - ADMA

스페인의 마드리드 중앙 구역 ADMA를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마드리드 중앙 구역 평의회는 규정 모델에 따라 7 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롤라 로자노 FMA와 알레한드로 비냐스SDB, 글로리아 블랑코에 의해 양성되었다. 나는 ADMA 회장의 총회를 열 수 있는 새 선거 때까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영적 활성화자들이 자신을 소개한다.

내 이름은 알레한드로 비냐스 라야이며 산 자코모 마쥬레 관구의 중앙 지역 (이전 마드리드 지방)인 ADMA의 영적 활성화자이다. 나는 또 카라반첼 알토 신심회의 영적 활성화자이기도 하다.

카라반첼의 미켈레 루아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1974년 4월부터 사제이다.

푸에르톨라노(치우다드 레알)에 있는 살레시오학교 출신으로, 5년간 학생이었다 - 쿠아르탕고의 주아조(빅토리아)와 아레발로 (아빌라)에서 지원기 - 모헤르 난도에서 수련기 - 과달라하라에서 철학 - 과달라하라에서

3년을 지냈다. 과달라하라에서 철학 - 아토차(대학)에서 3년 - 살라망카에서 신학 3년 - 아토차에서 사제 (학생기숙사) 2년과 코밀라에서 윤리신학 석사과정 2년 - 철도원 대학에서 1년 대학 - 치우다드 레알(대학)에서 2년 - 파리에서 10년(스페인 이민자의 본당 사제) -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2년 - 카라반첼에서 3년 (평수사 지원소의 원장) - 마드리드 관구 부관구장 6년 - 에스트레초의 원장 6년 - 파리에서 안식 1년 - 파세오 데 엑스트레마두라의 원장 6년 - 미켈레 루아 공동체의 카라반첼에서 지난 8년 (나는



가르치기 시작했고 은퇴 후 2017년부터 하루에 3시간 동안 학교 도서관의 조직, 업데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ESO 학사 학위의 교육학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마드리드 그룹 VDB의 지도 사제이기도 하다. 1965년 모에르난도 (과달라자라)에서 서원한 후 살레시안으로 있다. 2013-2014 학년도부터 신심회의 영적 활성화자이다.

내 이름은 마리아 돌로레스 로자노이다. 1940년 11월 14일 살라망카에서 태어났다. 가족의 기초는 매우 좋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단순함, 애덕, 책임감, 환대 등을 배웠다. 우리는 6남매인데, 맏이는 FMA, 막내는 SDB회원이다. 나의 살레시오 이야기는 간단하다. 20세에 수녀원에 들어와서, 55년간 FMA이다. 나의 삶은 평화롭고 즐거운 환경에서 책임감, 신앙, 많은 열정으로 발전했다.

이제 중앙구역에서 ADMA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각 ADMA는 성모님과 그분을 둘러싼 형제 자매들의 사랑에 대한 개인 경험에서 생겨난다. 진정한 사랑과 신심은 살레시안들과 살레시오 수녀들로부터 인식되고, 신심회 일원이 되고자하는 갈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봉헌된 이들과 평신도가 친교 안에서 함께 걸어간다. 규정된 신심회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기둥으로 결합된 살아있는 신심이 있으며,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ADMA가 성화의 길임을 안다. 그래서 마을과 도시 구별없이 살레시오 카리스마가 도달하는 곳이면 복되신 동정녀를 어머니며 스승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들의 현존이 사라질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복된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집이시다.

1899년에 살레시안이 마드리드-아토차에 도착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 도시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주요 성전이다. 그러나 오늘의 중앙 구역이 있기에 앞서 1895년 베자르에 도착했다. 1897년 살라망카의 아름다운 산 베니토 성당에서 신심이 시작되었고, 도움이신 마리아의 이미지는 항상 매혹적이었다. 지금은 복녀인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수녀가 그녀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어머니의 부르심을 느낀 곳이다.

마드리드의 수도로 돌아가서, 1903년 카라반첼의 당시 매우 가난하고 주변 지역에 있는 파세오 데 엑스트레마두라의 1922년, 스페인 수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살레시오 성전을 가지게 되었고, 1926년에는 마드리드에서 돔이 두 번째로 큰, 대 성전의 초석을 놓았다. 다른 명사들 가운데 알폰소 13세 국왕과 돈 펠리페 리날디 시장이 참석했었다.

살레시오수녀회 수녀들의 가장 오래된 사업은 살라망카에 있으며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살레시오수녀회 수녀들과 살레시안들은 토리노에서 태어난 이 유일한 ADMA의 지역 평의회를 활성화한다. 각 지역 신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장 오래된 신심회만 언급했다.



스페인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우리는 2 개의 SDB 관구와 1 개의 FMA 관구의 물리적 공간에 6 개의 ADMA 구역이 있다. 마드리드 중앙 구역은 산티아고 엘 마올 공간에 다른 두 개의 구역과 함께 있다. 스페인 전체를 포괄하는 유일한 FMA 관구는 그 영토에 6 개의 구역이 있다. 우리는 구역 평의회 의장과 활성화자,

그리고 회장에 의해 선출된 각 구역 평의회 의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전국 조정 위원회가 있다. 영구적인 의사 소통을 하고 있지만, 1 년에 3 번 만난다.

우리는 활성화, 양성, 순례와 미래의 도움이신 마리아 전국 대회를 조정한다. 스페인의 역사에는 이러한 대회들이 이미 40차례 있었으며 항상 살레시오가족 전체에게 열려 있다. 모든 것이 구역 평의회 의 봉사이므로, 그들은 지역 평의회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 전염병에서 우리는 매일 묵주기도 방송을 통해 희망과 기도로 지원하고, 토리노에서 우리에게 오는 구일 기도회에 초대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구역 평의회에서 오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강도 높은 친교를 살아 왔다. 우리는 그 해의 강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자원을 평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참여가 용이하도록 살레시오가족의 모든 모임, 활동과 이벤트를 전달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지하는 매우 소중한 이니셔티브는 ADMA 가족이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우리 어머니의 도움이라면 의심 할 여지없이 계속 될 것이다.

구역 평의회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연초에 지역 평의회 의 총회를 열어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연말에는 우리 성모님과 함께, 감사와 축제의 만남을 위해 성지 순례를 떠난다. 연초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 규정 우리의 정체성을 심화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동료들은 “돈 보스코가 설립한 형태로,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살레시오 신심을 위하여 살레시오가족에 속한다. 이 소속은 돈 보스코의 청소년 사명과 대중 사명에, 특히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신앙을 키우고 수호하는 측면에 참여하면서, 도움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기리는 데에 헌신한다.”

ADMA는 1869 년, Don Bosco가 살레시오회 (1859),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 (1872), 협력자회 (1876)와 함께 직접 설립한 그룹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신심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오늘날 성 요한 보스코에서 기원과 창립 아버지를 가진 32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살레시오가족의 위대한 나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레시오가족에 대한 소속과 참여는 상호 인식, 영적 친교와 사도적 나눔을 통해 형제적 친교의 돌봄과 여러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표현되고 강화된다.

살레시오가족 안에서 신심회는 "대중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복음화 하고 촉진하는 도구로서 마리아의 대중 신심을 강화하고 확산한다. ADMA의 마리안 특성은 카리스마와 살레시오 정신의 구성 요소 중 하나를 표현하면서, 하느님의 백성 안에 신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수호하는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 총장,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신부는 살레시오가족 전체의 아버지이자 단결의 중심이다. 그는 2014 년부터 돈 보스코의 10 번째 후계자이며 우리 시대에 생동감 있게 대표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는 영에 충실하고 살레시오 카리스마에 참여하는 기운을 보장하는 모범과 가르침을 제공한다. 그의 부성적 선행, 그의 안내, 그리고 그의 모든 표현에서 살레시오 성소의 비옥함에 대한 그의 헌신을 통해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봉사를 수행한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가족 연대기

- <https://www.infoans.org/부문/인터뷰/item/12936-스페인-알레한드로 게바라 신부-살레시오가족은 마리아 가족이며 마리아의 존재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 <https://www.infoans.org/부문/사진-뉴스/item/12930-부룬디-부테레르에서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
- <https://www.infoans.org/부문/사진-뉴스/item/12928-파푸아뉴기니-도움이신 마리아의 망토 아래>
- <https://www.infoans.org/부문/책 소개/item/12925-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마리아-마리아 축일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삶 속의 동정 마리아>
- <https://www.infoans.org/부문/사진-뉴스/item/12924-우간다 팔라벙에서 시작된 첫 번째 adma 그룹>
- <https://www.infoans.org/부문/심화/item/12917-온두라스-도움이신 마리아의 발-월터 귄렌소 토 몬시놀, sdb의 마리아 성찰>
- <https://www.infoans.org/부문/뉴스/item/12916-이탈리아-도움이신 마리아 축일-절제와 희망의 2021>
- <https://www.infoans.org/부문/사진-뉴스/item/12914-파라과이-도움이신 마리아를 기리는 해상 행렬>
- <https://www.infoans.org/부문/사진-뉴스/item/12911-바티칸-교황 프란치스코-가장 먼 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남녀 살레시안들>
- <https://www.infoans.org/부문/심화/item/12909-이탈리아-교회와 도움이신 마리아딸 수도회>

- <https://www.infoans.org/부문/심화/item/12895-rmg-도움이신 마리아와 선교사들>
- <https://www.infoans.org/부문/뉴스/item/12891-rmg-내일 살레시오가족의 세계 협의회 시작>
- <https://www.infoans.org/부문/뉴스/item/12963-rmg-예수님의 생애와 첫 공동체 안에서 의사 소통자, 마리아>

이월간지는다음사이트에서읽을수있습니다:

www.admadonbosco.org

당신의모든의사소통은아래e-mail 주소로연락할수있습니다:

animatore.spirituale@admadonbosco.org